차만 보이는 '차없는 거리'…관광명소화 무색

광주 U대회 앞두고 시범운영 전남대 후문 가보니

자동차 진입 억제 말뚝은 이미 파손

구청, 상인들 반발우려 단속 시늉만

"차 없는 거리에 주차된 화물·승용차들 좀 보세요. 좀 민망스럽네요. 내년 하계 U대회 앞두고 전대후문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관광명소화 하겠다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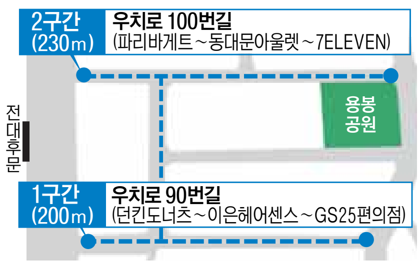
지난 17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맞은편 P제과점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용봉공원에서 만난 대학생 정모(27)씨는 N식당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를 가리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씨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자, '8월 1일부터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매일 오후 4시~밤 10시)'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시범 운영 장소는 1·2구간으로 나뉘는데, 1구간은 던킨도너츠~이은 헤어센스~GS25시(200m)이며 2구간은 전대후문 파리바게트제과점~동대문 아울렛~세븐일레븐(230m)이다. 하지만 너비 5~7m의 골목길엔 지그재그 형식으로 승용차와 화물차가 주차돼 있었다. '차 없는 거리'라고 하기에 어색할 정도였다.

2구간에서 직선거리로 100m 떨어진 1구간도 사정은 마찬가지. 1구간 종착지인 GS25시 편의점 앞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 말뚝(볼라드)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누군가 차를 몰고 진입하려다 들이받은 것이다. 파손된 볼라드만 설치돼 있었을 뿐 차와 보행자가 뒤엉킨 혼잡함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승용차는 볼라드를 피해 차 없는 거리를 자유자재로 오갔고 보행자들은 이리저리 차를 피해 다녔다.

■ 전대후문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구간



이 같이 '차 없는 거리'가 '차 있는 거리'로 전락한 이유는 북구의 모호한 행정 때문.

구는 시행 초기 매출 감소를 우려한 상가 주인들의 반발을 우려,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를 한 개만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이동식으로 만들었다.

차량 통행제한시간 이외엔 상권 보호차원에서 모든 차량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사실상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가 없는 셈이나 다름 없다는 얘기다.

구가 적극적인 통행제한이나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보행권을 보장하겠다며 지정된 이들 거리는 보행자 중심 도로가 아닌 차량 중심도로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내년 하계 U대회를 앞두고 전대후문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북구의 계획도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상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차량 출입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구의 모호한 태도가 지속할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과 상인들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애초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돼 이동식 볼라드를 놔뒀다"며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 공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맞은편 '차 없는 거리' 2구간에서 승용차가 차량 통행제한시간(매일 오후 4시~밤 10시)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 '차 없는 거리' 1구간에 설치된 볼라드가 파손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18	달뜸	01:39
해짐	18:34	달짐	15:34

아이 손 잡고 나들이 가세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7/28	보 성	맑음	13/26
목 포	맑음	17/26	순 천	맑음	16/27
여 수	맑음	19/25	영 광	맑음	15/28
나 주	맑음	14/28	진 도	맑음	15/26
완 도	맑음	17/26	전 주	맑음	13/28
구 례	맑음	12/27	군 산	맑음	15/27
강 진	맑음	15/26	남 원	맑음	12/27
해 남	맑음	15/27	흑산도	맑음	19/24
장 성	맑음	14/2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	북동~동	0.5~0.5
	먼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0
	먼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0:25	04:20
	23:29	16:20
여수	06:13	00:24
	18:39	12:02

◇ **생활지수**

식중독	62
운동	40
빨래	60

◇ **주간 날씨**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16/28	16/28	16/28	16/27	18/26	18/25	16/26

광주·전남 10월 중순께 첫 단풍 시작

올해 광주·전남지역의 단풍은 10월 중순께 시작돼 11월 초순이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오는 10월20일께 광주 무등산 정상에서부터 아래로 20%가 물드는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등산에서 시작되는 단풍은 ▲조계산(10월22일) ▲월출산(10월23일) ▲두륜산(10월30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또 산의 80%가 단풍이 드는 절정 시기를 무등산과 조계산은 11월3일, 월출산 11월4일, 두륜산 11월11일로 예상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평년보다 1~4일 정도 늦지만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평년과 동일하고 오히려 조계산은 하루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빠른 단풍은 설악산 9월28일(절정 10월18일)로 지리산 10월9일(〃10월21일), 내장산 10월18일(〃11월7일)이 예상된다.

/ 박기웅기자 pboxer@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노조원 징계 부당"

전남지방노동위, 46명 구제신청 받아들여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다가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징계 사유는 되지만 가혹하다는 게 노동위원회 판단이지만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장에 대한 코레일의 파면 결정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양현)는 지난해 말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46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7일 철도노조 호남지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호남지역 조합원 김모(42)씨 등 46명에 대한 코레일 측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 46명은 지난 2월 28일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코레일로부터 해임(9명), 정직(36명), 감봉(1명) 처분을 받고 지난 5월 위원회에 코레일 측의 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구제를 신청했었다.

위원회는 그러나 코레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철도노조 호남지역 본부장 김모(40)씨에 대한 구제는 인용하지 않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자들이 23일간 파업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코레일 측이 내린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장의 경우 코레일의 파면 결정이 지나치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레일 측은 위원회의 판정문을 송달받은 뒤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코레일 측이 위원회의 판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4회)에 걸쳐 이행 강제금(1인당 250~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대표적 장애인 인권침해"

한국에서 지난 2월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건이며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장애인을 노예처럼 폭행하며 일을 시킨 염전노예 사건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